

정례브리핑

2020.8.28(금) 10:30, 조혜실 부대변인(통일부)

안녕하십니까?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
통일부 장관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장관실에서 금강산 기업인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. 모두말씀까지 공개되는 일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.

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

[질문 · 답변]

※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(***)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.

<질문> 이번에 '바비'와 관련해서 북한에 어느 정도 피해상황이 집계됐는지 정리가 들어온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

<답변> 북한매체에서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아직 발표하고 있지는 않고, 농경지 침수, 주택 파괴 등 지역별 태풍 피해상황에 대해서 내용들을 밝히고 또 복구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<질문> 오늘 VOA 보도를 보면 북한 내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. 통일부가 북한 내 코로나19 현황 파악하고 있는 것과 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

그리고 아직까지 북한이 별다른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물품 지원이라든지, 정부 차원의 협력계획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

<답변>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은 지난번 노동신문 7월 30일 자 보도에서도 북한 내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아직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, WHO에도 동일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상황을 저희도 살펴보고 있습니다.

두 번째 질문에서는 민간단체 지원... 두 번째 질문 한 번만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?

<질문> 그러니까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,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반응이,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 의지 같은 것은 변함이 없으신 건지.

<답변> 민간... 정부로서는 장관님께서도, 장관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, 특히 남북대화 복원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인도적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시작하고, 그간 있었던 남북 간 약속과 합의의 이행으로 발전시켜 나갈 창의적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착실하게

해 나가면서 북한 상황도 보고 점차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

<질문>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. 황해도가 북한 최대 쌀 생산량이 나오는 데라고 하던데 대략 어느 정도인지, 제가 규모가 가늠이 안 잡혀서요. 3분의 1인지 뭐.

<답변>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 보고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끝>